GOLDEN WEEK

2014.6.16

Analyst
이상준
02)3779– 3622
hlsj@goldenbridgefg.com

주요 내용

♦ 시장 전망 : 삼성전자에서 反삼성전자로

지난 주말 삼성전자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형주는 비교적 선전했다. 시장의 실제 방향성은 삼성전자 외의 다른 낙폭과대주의 하방경직성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다.

♦ 이 주의 이슈 : 그래도 돌아봐야 할 환율 변수

달러 원 환율 1,020원 선 붕괴에도 불구 최근 종목별로 환율에 대한 주가 민감도는 약화되어 있다. 다만 원화 추가 강세 시 부담은 불가피하며 특히 중소 수출 기업의 실적 부담은 경계해야 한다.

♦ 증권사 별 관심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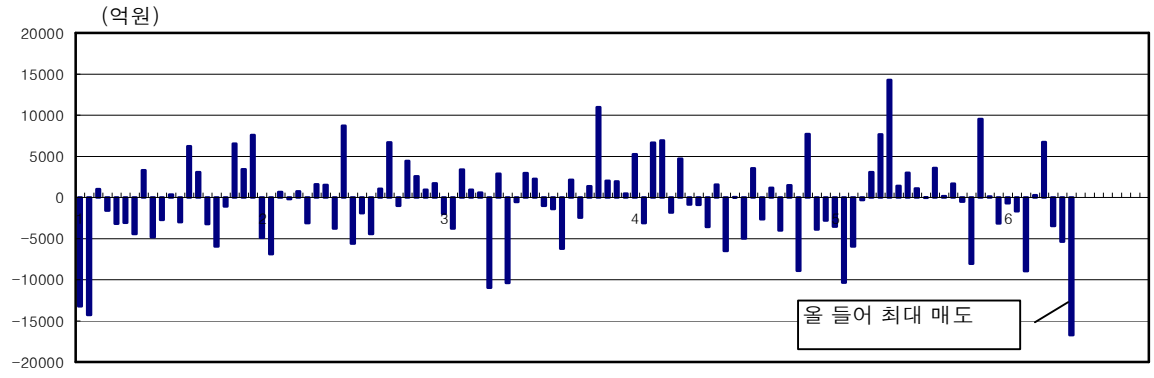
현대제철의 EPS 전망치가 두 군데에서 상향되었고 이마트 GS홈쇼핑 등의 투자 의견이 상향되었다.

♦ 주간 수급 상황 및 수급 특징주 점검

국내기관의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매수가 두드러진다.

<금주의 차트>

외국인 선물 순매매 추이



시장 전망

삼성전자에서 反삼성전자로

삼성전자에서 다른 대형주로 무게중심 이동

♦ 주말 삼성전자만의 급락

지난 주말 삼성전자가 3% 이상 급락했고 코스피도 1,990P선마저 내주는 지수상의 공포 국면이 나타났지만 다른 대형주 시세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사실 삼성전자에서 다른 대형주로 무게 중심이 넘어간 흐름은 주초부터 나타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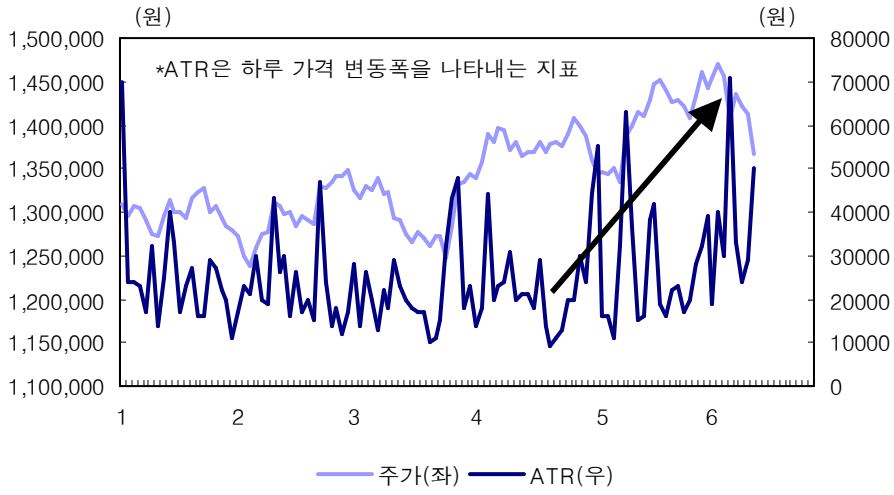
삼성전자 만의 약세는 1)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2)지배구조 이슈의 희석 3) 올들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선물 매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 중 어느 요인이 가장 강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게 사실이다.

과도한 주가 변동

♦ 문제는 과도한 주가 변동

문제는 주가의 변동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가 총액 20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의 주가마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안정한 시세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은 거의 없다는 판단이다

삼성전자의 ATR 추이



SOURCE)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난주 반등했던 종목의 반등 배경은 낙폭

♦ 관건은 낙폭 과대주의 하방 경직성 확보

사실 최근 일부 중국 지표가 선전하면서 지난 주 다른 대형주의 반등 근거를 2분기 실적 기대감에서 찾기도 하지만 핵심은 낙폭이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 올해 들어, 혹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지난 주에 큰 폭으로 반등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상승률 상위10(코스피50기준)

종목명	등락율		종목명	등락율	
	지난주	연초~6.5		지난주	연초~6.5
LG디스플레이	10.26%	-14.92%	NAVER	5.65%	226.59%
엔씨소프트	10.00%	+7.14%	LG화학	4.54%	-22.35%
현대제철	7.63%	-25.44%	삼성증권	4.53%	-25.57%
롯데케미칼	6.82%	-34.43%	SK이노베이션	4.41%	-44.35%
대우조선해양	6.44%	-9.70%	삼성카드	4.21%	10.25%

SOURCE)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그나마 지난 주말 삼성전자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이들 종목이 대부분 선전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번 주 초반 이들 종목의 안정적인 시세 흐름이 더 이어질 지는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시장의 방향성은 낙폭 과대주의 하방 경직성 여부에

시장의 실제 방향성은 이들 종목의 하방 경직성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만약 이들 종목이 급락하면서 다시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패턴이 출현한다면 2천P대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불안 심리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연준회의 주택지표 등 주목

♦ 연준회의 등에 주목

이번주 중요 변수로 미국의 주택 지표와 연준회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16일	미) 5월 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 6월 NAHB주택시장지수
17일	미) 5월 CPI 건축허가 주택착공 반도체) 상반월 패널가격
18일	일) 5월 무역수지
19일	미) 연준회의 마감 버냉키 전의장 연설
20일	유) 6월 소비자기대지수

이번 주 이슈

그래도 돌아봐야 할 환율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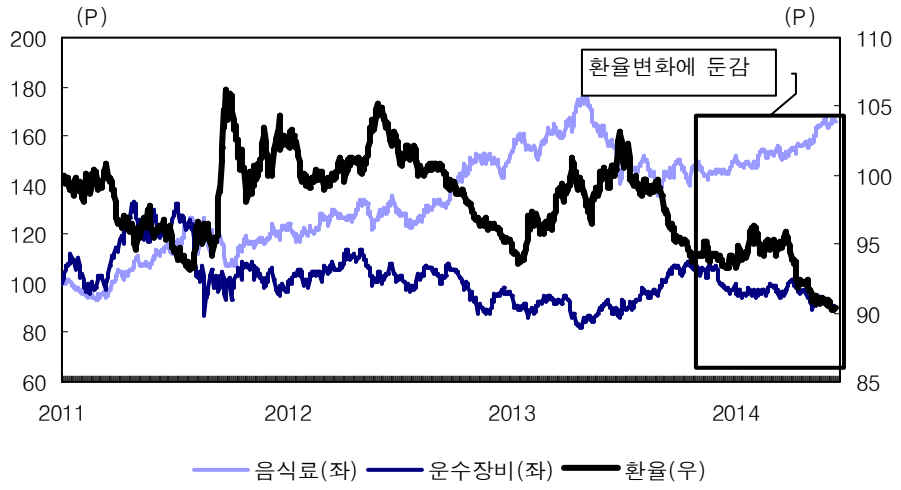
♦ 종목별 환율 민감도 약해진 흐름

심리적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달러 원 환율 1,020원 선이 무너졌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약해진 환율의 주가 민감도

대표적으로 환율 하락이 부담스러운 자동차 주나, 환율 하락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음식료주 역시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급격한 주가 급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환율과 업종 상대강도(2011년초=100)



SOURCE) 골든브릿지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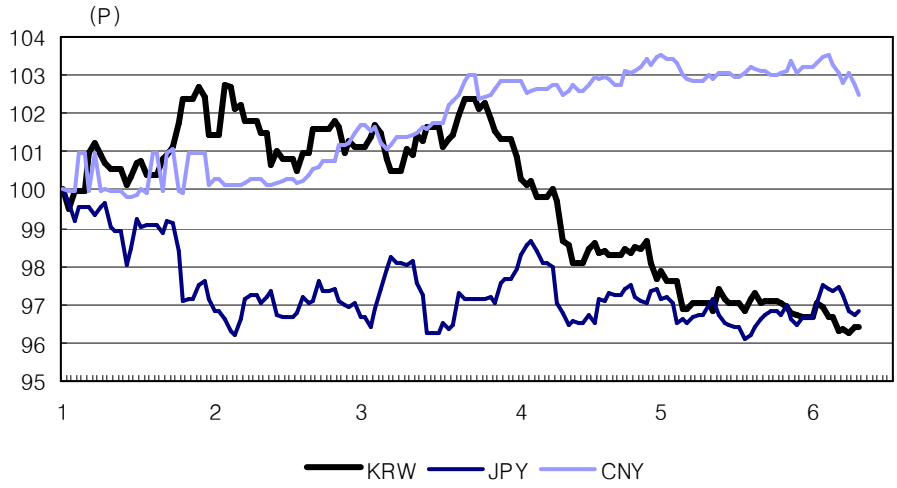
♦ 주춤해진 엔화 약세 등이 완충

방향성 없는 엔화 흐름이 부분 완충작용

이처럼 원화 강세에 시장이 둔감해진 것은 원화강세 VS. 엔화 약세의 흐름이 나타났던 1월과는 다르다는 점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월 이후 달러 엔 환율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의 약세도 부담이 되는 요인이지만 최근 위안화도 약세가 진정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원 엔 위안화 상대 강도(연초=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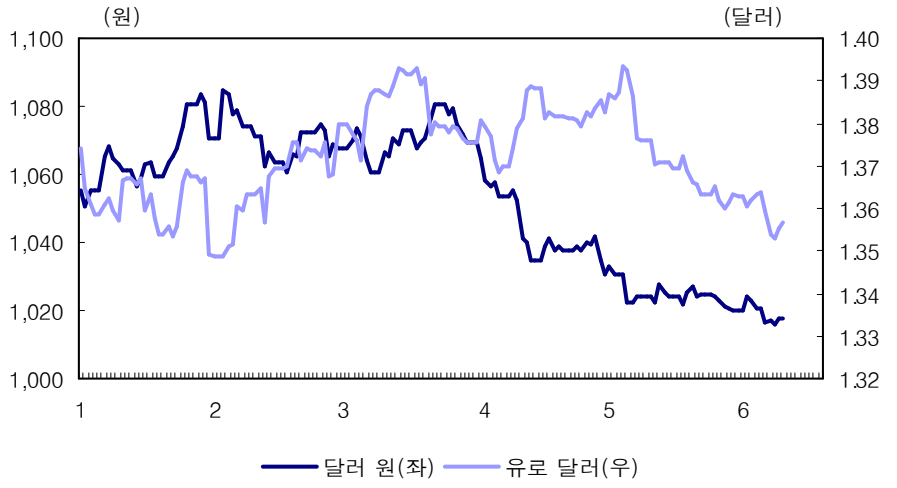
SOURCE)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부담되는 원화의 나 홀로 강세 흐름

♦ **원화의 추가 강세 가능성 부담 요인**

그렇지만 원화의 추가 강세 소지가 높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 요인일 수 밖에 없다. 특히 당국의 구두 개입 효과가 잘 먹히지 않는 점, 무엇보다 최근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화만의 '나 홀로 강세'가 이어지어고 있는 점은 부담을 가중시킨다.

달러 원과 유로 달러 환율 추이



SOURCE)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시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될 소지

2분기 실적에 부담

현재까지 환율에 대한 종목별 주가 민감도는 약한 편이지만 만약 원화의 추가 강세가 진행될 경우 시차를 두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소지는 클 수 밖에 없다.

만약 환율 하락이 현재 수준에서 저지된다 하더라도 수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중소 수출기업 부담 가중

특히 키코 트라우마를 겪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환리스크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번 주 증권사 관심 종목

♦ 증권사별 관심 종목

지난주 EPS 전망 10% 이상 상향 종목

2개사	현대제철
1개사	두산인프라코어 만도 미래에셋증권 삼기오토티브 이오테크닉스 컴투스 한국콜마 현대리바트 현대산업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지난주 투자의견 상향 종목

다음 만도 위메이드 이마트 GS홈쇼핑

SOURCE) Wisereport

현대제철 실적 전망치 중복 상향

철강주 내에서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현대제철의 경우 2분기 실적 회복 기대감 속에 두 군데에서 EPS 전망치가 10% 이상 상향 조정되었고 지난주 주가도 큰 폭으로 반등했다.

이마트 GS홈쇼핑 등 목표주가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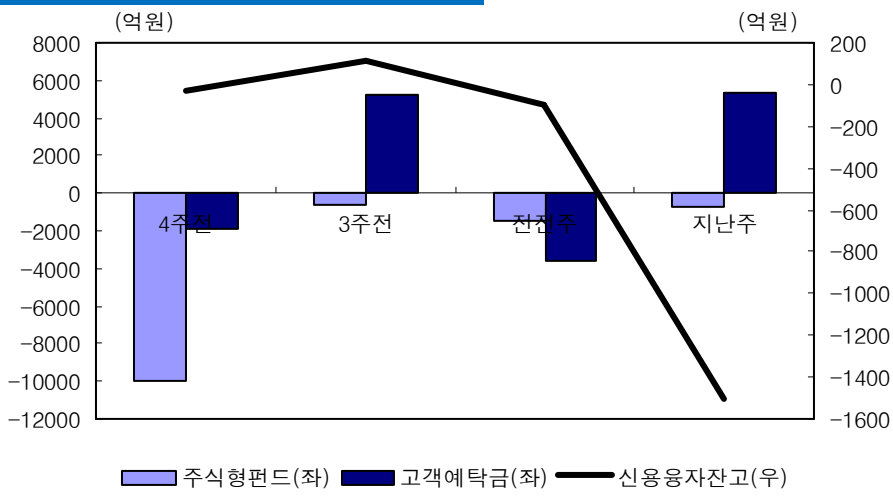
최근 부분적인 반등 시도를 보이고 있는 이마트와 GS홈쇼핑 등 유통주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도 눈에 띈다.

수급 체크 사항

고객예탁금 비교적 큰 폭으로 유입

♦ 증시 주변자금 변화

주간 증시자금 증감



♦ 주간 순매수 순매도 상위 TOP5

국내기관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등 매수

순매수상위 TOP5

코스피	기관	현대제철 한국타이어 롯데케미칼 NAVER 만도
	외국인	삼성생명 NAVER LG디스플레이 엔씨소프트 LG화학
코스닥	기관	다음 파라다이스 CJE&M 메디톡스 컴투스
	외국인	원익IPS 서울반도체 솔브레인 내츄럴엔도텍 파트론

순매도상위 TOP5

코스피	기관	삼성전자 삼성물산 기아차 현대차 POSCO
	외국인	삼성전자우 한국타이어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LG생활건강
코스닥	기관	에스엠 솔브레인 차바이오텍 한스바이오메드 이라이콤
	외국인	다음 루멘스 파라다이스 CJE&M 아프리카TV